리더 노트 #4 · 찬양 인도자 1/3

찬양 인도자가 하는 일 → 그 이유

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**성도 모두**예요(히 13:15 "우리가"). 앞에 선 사람의 일은 **회중이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돕는 것**입니다.

하는 일	그 이유 (성경 · 역사)
1 가사가 성경에 맞고, 그날 말씀과 어울리는 곡 고르기	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"찬미의 제사"이고, "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"예요. 회중이 입으로 부르는 가사가 곧 고백이 되니까요. 히브리서 13:15 (개역한글)
2 곡의 시작과 흐름 잡기 — 회중이 헤매지 않게	1645년 예배 지침은 글 못 읽는 성도가 많은 곳에선 시편을 한 줄씩 먼저 읽어 주라고 했어요.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려는 거였죠. 오늘은 카운트·첫마디·송폼 신호가 그 일을 해요.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(1645) · "line by line"
3 회중보다 한 걸음 먼저 진심으로 예배하기	인도자도 "우리가"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. 찬양은 인도자를 거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요. 히브리서 13:15 "예수로 말미암아"

1645 · 웨스트민스터
시편을 한 줄씩 먼저 읽기 — 목사·선창자(precentor)

1970년대 후반 · 미국
찬양 운동에서 'worship leader'란 말이 쓰이기 시작

1987 · 한국
하스데반 선교사 '경배와 찬양' 목요모임 → 밴드 예배 확산

팀과 나눠 보세요 · 지난 주일, 회중이 따라 부르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? 그때 우리가 먼저 해 줄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?

출처: 히브리서 13:15(개역한글) · Westminster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(1645), "Of Singing of Psalms" · Lester Ruth, 현대 찬양 예배사 연구
가사·악보는 담지 않았어요.

Com2Worship